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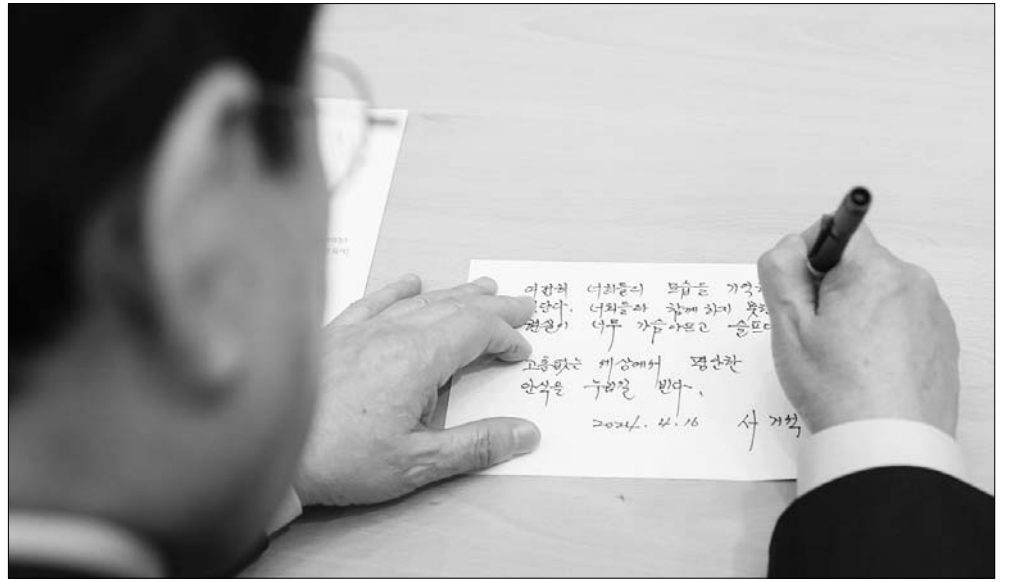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17일까지 공모전... 챌린지 등 4개 분야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2024 인권친화적인 학교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권챌린지(학생, 교직원) △카드뉴스(학생, 교직원) △이모티콘(학생, 교직원) △시(학생)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도내 학교 재학생이나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모두의 학교를 위한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 우리 교실 속 인권 존중 문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보호의 균형과 조화 등을 작품 속에 담아내면 된다.



작품은 전북교육인권센터(<https://www.jbe.go.kr/human/>)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각 분야별로 인권지향성·작품성·창의성·표현력·활용성

등을 심사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60팀을 선정 시상한다. 수상작은 5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북교육인권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37-0359)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 콘텐츠 개발로 인권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들을 많이 응모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평안한 안식 누리길” 16일 부안 해양수련원에서 제10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식 교육강이 추모 엽서를 작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꿈 펼칠 수 있는 곳에 써주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 장학금 기탁식 개최
비타민G&P 1000만원 · 완산학원 강일영 이사장 3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는 16일 오후 본청에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진숙 (유비타민G&P 대표)과 강일영 완산학원 이사장이 참여,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전주에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여성기업인 (유비타민G&P)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학금을 기탁했다. 유진숙 대표는 “학업에 꿈이 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올해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강일영 이사장은 교육계에 38년 이상 근무하며 전북교육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말 제39회 전북대상 수상, 이때 받은 상금 300만원 전액을 기탁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일영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는 16일 오후 본청에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진숙 (유)비타민G&P 대표와 강일영 완산학원 이사장이 참여,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용해 달라”고 뜻을 전했다. 서거식 교육강은 “장학금을 기탁해 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통해 기탁자분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똑디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웹툰을 만들기 위해 관심이 쏠린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똑디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이라는 웹툰 자료를 개발, 누리집에 연재하기로 했다. 지난해 ‘똑디와 함께하는 스마트기기 활용 예절의 모든 것’, ‘똑디와 함께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윤리의 모든 것’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웹툰으로 제작한 것. 웹툰은 건전한 디지털 수업 문화 정착을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 방법 △



스마트기기 사용 기본예절 △건강관리 방법 등 스마트기기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생성형 AI 인공지능 윤리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체나는 전주전라초 교사, 이승지 군산동초 교사, 이지숙 전주남성중 교사 등 현직 교사들이 직접 자료 개발에 참여했다. ‘똑디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SNS, 유튜브 등에 탑재할 예정이다. 총 10화까지 연재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첫 화가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 부서자료실에 탑재돼 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소통 능력, 자기주도성, 디지털 문해력 등 미래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활용능력과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 강좌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대학과 연계 진로탐색 기회 제공 위해
1학기 4개 대학서 33개 강좌 운영... 20~26일 수강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2024년 일반고-대학 연계 1학기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도 교원 수급, 활동 공간 한계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주말 강좌에는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하며, 33개 강좌에 660명의 학생을 모

집할 예정이다. 주요 강좌로는 △전주기전대=도전! SNS영상 크리에이터 등 7강좌 △전주비전대= 첨단 방사선 세계 등 12강좌 △원광보건대=나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 제조 등 12강좌 △전북과학대=드론 자격증 및 드론촬영실무 등 2강좌가 있다. 수업은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20~26일 공동 교육과정 플랫폼 (<https://jbeacademy.kr>)을 통해 개인별로 하면 된다. 고 1·2학년생 우선 선발하며, 신청 학생이 적으면 3학년도 포함된다. 신청 결과는 5월 31일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및 2학기 ‘주말 강좌’와 청소년 상상학교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 강좌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인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연수원, 11월까지 화·목 퇴근길 상시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으로 찾아가는 ‘화·목 퇴근길 상시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으로 찾아가는 ‘화·목 퇴근길 상시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4일, 9일, 11일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에서 ‘상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연수에 참석한 교원들은 “퇴근 길에 전문가의 연수를 듣고, 바로 학급에 적용할 수 있어 좋았다”며 “평소 연수에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권역별로 찾아오는 연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병기 원장은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피드백은 찾아가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 찾아가는 상시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비자의 재미·행복 30여가지 연구 성과

소비자광고심리학회 19일 전북대서 학술대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강정석)는 오는 19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심리 전문가 양성단(전북대학교 심리학과 BK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DISCO to Fun(Diversity in Studying Consumer Orientation to Fun)’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재미와 행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호 교수(전북대 법의학교실)와 문덕환 이사(미크로밀엠브레인)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는 ‘소비자 웰빙’,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 ‘소비자와 소셜 미디어’ 등의 일일세션에서 16명의 연구자, 전북대 BK21+와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특별세션에서 7명의 연구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특별세션에서는 ‘그린워싱: 소비자 인식과 광고의 역할’에 대해 7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강정석 회장은 “소비자에게 재미는 삶의 활기를 되찾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힘을 준다”며 “최근에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통한 삶의 즐거움, 행복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미를 통한 행복 증진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5일 온누리홀에서 제7회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미래 전북’

전주대, 제7회 미래전북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온누리홀에서 제7회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가 주관하고 (주)정석케미칼, 나노기술연구협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후원했다.

벌써 7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의 혁신이 선도하는 미래 전북’이라는 주제로 박진배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 초청 강연, 2부 패널 토의로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초청 강연에서는 KIST 반도체공학대학원 최승을 원장이 ‘딥테크 기술

사업화와 혁신 창업’, 한국전자기술원 소재부품·에너지연구소 조진우 소장이 ‘나노기술! 초격차 시대의 게임 체인저’, 나노기술연구협회 안진호 회장(한양대 연구부총장)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나노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산학연 각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의 혁신이 선도하는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배 총장은 “오늘 개최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대학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적극행정 실천 특강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16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신유희 전문강사를 초청,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을 주제로 120분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적극행정 1인 1실천과제 1인 1실천과제는 적극행정 전담팀 구성, 직원 1인 1실천과제를 발굴해

10월까지 실행, 11월에 우수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극행정 청의성 및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관장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의 자세로 청렴 책무성을 제고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